

#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자

## 분렬의 장벽을 뒤흔드는 통일애국의 육성

민족안에 가로놓인 난국을 라게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가득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은 장장 수십년간 이 땅위에, 겨레의 가슴속에 일어불은 대결과 분렬의 장벽을 뒤흔드는 통일애국의 육성이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이 땅위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아침을 기어이 불러오려는 공화국의 뜨거운 의지가 구절구절 맥박치는 이 정부성명은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와 세계 광범한 여론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성명에는 우리 민족끼리의 단결합력 힘으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하고 성의있는 립장과 적극적인 노력의 반영되어있다. 올해에 들어와서 공화국은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할것을 호소하였으며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공개서신을 통해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제안들을 내놓았다.

북남관계를 어떻게 하나 개선해나가려는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북남교류접촉이 이루어지고

귀중한 합의도 도출되었으며 남조선에서 북침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속에서도 북남의 흘러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될수 있었다. 이처럼 시작을 좋게 매였던 북남관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또다시 우여곡절을 겪고있는것은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공화국은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책임적이고 인내있는 노력을 시종일관하게 기울이고있다.

바로 며칠전 공화국 국방위원회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틀어쥐고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데 대한 특별제안을 남조선당국에 보낸데 이어 공화국정부성명을 발표하여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려는 공화국의 의지가 얼마나 성의있고 강간가를 현실로 증명해내고있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적대와 대결이 극도에 달하여 사소한 언행이나 소소한 마찰도 위험한 충돌과 민족적파멸로 이어질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지속되고있다.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해 온 겨레가 힘과 지혜를 합쳐야 할 중대한 시기에 동족끼리 소모적인 정쟁으로 민족의 참

화를 불러오는 비극적사태를 더이상 방치할수 없다는것이 바로 공화국의 립장이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 덮어놓고 적대시하는것은 냉전시대의 관념이며 북과 남이 무모한 적대와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화해하고 단합하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나서고있다.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정부가 호소한대로 동족에 대한 적대관념을 버리고 대결정책을 량분화해정책으로 바꾸며 외세와 야합한 각종 북침전쟁연습을 전면중지하는 대응단을 내려야 한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족공동의 합의들이 부정당하고 대결에 악용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종식되어야 한다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일치한 요구이다.

공화국정부성명에 지적되어있는것처럼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다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돌리거나 《부적》을 청탁하고 동족을 모해하는 《제재》와 《공조》를 구걸하는것은 수치스러운 사대매국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의 침략야망을 억제하고 자

주통일과 민족민대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로 공화국의 핵을 걸고들면서 외부에 나가 《공조》를 청탁하는 무모한 행위에 매달릴수록 북남관계는 더욱더 악화될뿐이다.

북과 남이 온 겨레가 지지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지향해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북과 남이 근 70년동안이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고수하고있는 조건에서 《체제통일》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하기에 북과 남은 6.15공동선언에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량분제안과 남측의 량합제안이 서로 공동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북에도, 남에도 접수될수 있는 량분면합제방식의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적극 도모하는대로 통일운동을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동족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온갖 비방증상을 종식시키며 북남사이의 혈연적식대와 동포애의 정을 가로막고있는 법적, 제도적조치를 해제하고 접촉과 래왕, 협력과 대화의 길을 활짝 열어놓는 등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고 통일을 평화적으로 빨리 이루실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통일애국애족의 일념이 넘쳐나는 공화국 정부성명에 적극 호응해나와야 마땅하다.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안의 전체 일꾼들은 지난시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끼리의 간지높이는 온 겨레의 지향과 찬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번에 공화국은 정부성명에서 북과 남이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야 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나라의 분렬을 통해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외세의 회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사대로 망국을 강요당했던 우리 민족의 파기사가 보여준 심각한 교훈이기도 하다.

수천년동안 하나의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던 우리 나라가 지난세기 초엽 일제에게 국권을 송두리째 강탈당하지 않았으면 안 되게 된것은 조선봉건통치배들이 자기 민족의 힘을 믿지 않고 큰 나라를 섬기고 숭배하면서 사대주의를 한것에도 주요한 원인이 있다.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외세의 침략행위로 하여 나라의 분렬을 통해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외세의 회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사대로 망국을 강요당했던 우리 민족의 파기사가 보여준 심각한 교훈이기도 하다.

수천년동안 하나의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던 우리 나라가 지난세기 초엽 일제에게 국권을 송두리째 강탈당하지 않았으면 안 되게 된것은 조선봉건통치배들이 자기 민족의 힘을 믿지 않고 큰 나라를 섬기고 숭배하면서 사대주의를 한것에도 주요한 원인이 있다.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외세의 침략행위로 하여 나라의 분렬을 통해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외세의 회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사대로 망국을 강요당했던 우리 민족의 파기사가 보여준 심각한 교훈이기도 하다.

수천년동안 하나의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던 우리 나라가 지난세기 초엽 일제에게 국권을 송두리째 강탈당하지 않았으면 안 되게 된것은 조선봉건통치배들이 자기 민족의 힘을 믿지 않고 큰 나라를 섬기고 숭배하면서 사대주의를 한것에도 주요한 원인이 있다.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외세의 침략행위로 하여 나라의 분렬을 통해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외세의 회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사대로 망국을 강요당했던 우리 민족의 파기사가 보여준 심각한 교훈이기도 하다.

수천년동안 하나의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던 우리 나라가 지난세기 초엽 일제에게 국권을 송두리째 강탈당하지 않았으면 안 되게 된것은 조선봉건통치배들이 자기 민족의 힘을 믿지 않고 큰 나라를 섬기고 숭배하면서 사대주의를 한것에도 주요한 원인이 있다.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외세의 침략행위로 하여 나라의 분렬을 통해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외세의 회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조성해야 한다.

공화국이 정부성명을 통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한것은 팽각된 북남관계를 민족적화해의 열기로 녹이고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하려는 성의있는 조치이다.

공화국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때로부터 2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으며 정부성명을 발표하고 이 실현하려는 강렬한 통일애국의지를 충분히 엿볼수 있다고 본다.

공화국정부성명의 구절구절을 관통하고있는 애국애족의 호소들이 실현된다면 북남관계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전환적기구가 마련되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의 이 애국애족의 호소에 진심으로 호응하는것은 회피할수 없는 민족적자각과 량심에 관한 문제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 외세의존을 배격해야 한다

얼마전 공화국은 현시기 민족안에 가로놓인 난국을 라게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을 일념밑에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국방위원회의 특별제안에 이어 편이 발표된 공화국의 정부성명은 민족단합과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내외의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번에 공화국은 정부성명에서 북과 남이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야 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나라의 분렬을 통해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외세의 회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북남관계개선에 장애로 되는 외세의존을 끝장내고 동족끼리 손잡고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공화국정부의 립적적립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려는것은 북과 남이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어길수 없는 근본원칙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으로써는

## 적대와 대결상태를 끝장내야

현시기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열기는 그 어느때보다도 비상이 높아지고있으며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사활적인 문제로,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사적과제로 나서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공화국은 민족앞에 가로놓인 오늘의 난국을 라게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가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4개 조항으로 된 정부성명을 천명하고 남조선당국에 그에 호응해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얼마전에 있는 국방위원회 특별제안에 이어 발표된 공화국의 정부성명은 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의 뜨거운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내외의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북과 남이 무모한 적

대와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갈데 대한 공화국정부의 제안은 우리 민족만이 겪고있는 수치와 비극의 분렬사를 하루빨리 끝장내기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시기적절한것이다.

한피줄을 나눈 북과 남이 사상과 립념, 제도가 다르다고 불신하고 대결하면 종당에는 민족적파멸만을 불러온다. 화해와 협력으로 단합하는 길에 민족의 번영이 있고 통일의 밝은 앞날도 있다.

가이한 사상과 제도를 가진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사실상 북과 남이 서로 적대시하고 싸워야 할 타당한 리유란 없다.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화해하고 협력하며 단결하여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겨레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할 중대한 시기이다.

남조선당국은 시대착오적인 적대관념을 버리고 동족대결정책을 량분화해정책으로 바꿀 용단을 내려야 한다.

이와 함께 동족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집적증산물인 외세와 야합한 각종 북침전쟁연습을 전면중지하여

야 한다.

만약 이 땅에서 핵전쟁의 불꽃이 튀긴다면 피해를 입을것은 우리 겨레이다.

극단한 동족대결관념에 포로되어 앞에서는 《통일》을 떠들고 돌아앉아서는 미국의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끌어들이며 동족을 포갈하고 위협하는 북침전쟁연습에 매달리는것과 같은 온갖 군사적적대행위들이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외면하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민족이 단결하여 힘을 합치면 강해지지만 갈라지면 약해지고 종당에는 외세의 간섭과 침략을 당하게 된다 이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북과 남이 힘을 합치면 누구도 따를수 없는 강국이 될 것이며 그 무엇도 무서울것이 없다.

조선민족의 과거 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 70년간에 달하는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협력, 단합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본사기자 서희

## 련방제방식의 통일은 민족의 지향

민족최대의 추모일을 맞으며 발표된 공화국정부성명을 너무나 격동속에 접하였다. 마디마디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을 반영하여 북남관계와 자주통일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이 넘쳐나는 공화국의 정부성명이다. 특히 북과 남이 온 겨레가 지지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지향해나가야 한다고 한 성명의 내용을 읽으면서 충격이 더욱 컸다. 민족이 갈라져 이제는 69년,

더이상 미룰수 없는 나라의 통일이다. 통일이 절박할수록, 통일이 어려울수록 민족의 이해와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통일의 모습이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겨레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본다.

공화국정부성명에도 지적되어있듯이 북과 남에 근 70년동안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서로가 자기의 체제를 고수하고있는 조건에서 《체제통일》은 곧 전쟁의 길을 의미한다.

## 관계개선의 유리한 분위기를

었다.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채택이후 반북과 대결로 열어놓았던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접촉, 민족공동의 번영을 도모하는 협력사업들이 활성화되고 각계층의 통일행사가 성대히 벌어져 우리 겨레를 얼마나 통일의 환희로 뒹구는지 대개 하였는가. 6.15통일시대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길임을 겨레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었다.

현정세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질시하는것은 더이상 용납될수 없으며 그것은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줄뿐이다.

이제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공화국의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이 나가면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열기는 더욱

## 분위기를

고조될것이고 그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는 거센 밀물이 될것이다.

사랑과 평화,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 카톨릭교인들은 겨레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민족의 부활인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정의로는 통일애국성전에서 신양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다.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책임부원 리어금

##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특별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이 1일 논평을 통해 공화국의 특별제안을 받아들일것을 남조선당국에 요구하였다.

논평은 남조선당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특별제안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평화를 갈망하는 해외동포들에게 실망을 주었다고 비난하였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남조선당국이 북과 관계개선을 할 의지가 없다는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통일부장관은 《7.4공동성명 등 남북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하였다고 단죄하였다.

이것은 7.4공동성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명이 담고있는 자주의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 민족대단결의 원칙마저 제대로 리해하지 못하는 자기의 무지름 스스로 폭로한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사실상 남북관계에서 자주의 원칙을 전혀 지켜오지 않았고 자주의

## 재미동포언론이 주장

립장을 지킬수 있는 조건도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하면서 논평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남조선은 미군에 군사주권을 넘겨준채 돌러받기를 거부하는 미국의 식민지이다.

남조선당국은 7.4공동성명에 담고있는 평화통일의 원

## 주 장

칙을 지속적으로 어겨왔다. 미국과 합동하여 북을 침략하기 위한 훈련 그것도 핵무기로 침략하기 위한 각종 대규모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리면서 평화를 말할수 없는가.

조선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핵보유국이 되었는지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이라

도 가지고있다면 남조선당국의 판료들은 얼굴을 들지 못할 처지인데 북을 향해 《진정성》을 운운하는것은 낮두 게운것이다.

또한 남조선 《정부》는 북을 민족대단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규정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남북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였다.》느니,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느니 하고 말하는것은 얼마나 뻔뻔한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7.4공동성명을 존중한다면 공화국 국방위원회 특별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실천행동에 니설것을 당국에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